

만 5세 학제 편입논란에 대한 고찰

김 명 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한국에서 영유아 보육의 발전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영역(특히 교육영역)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질적, 양적 모든 측면에서 급속히 이루어져 왔다. 1990년 초에는 여러 부처에서 수행되었던 보육 업무를 한 행정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해, 1991년에는 ‘영유아보육법’ 제정에,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을 시급히 늘리는 것에 주요 정책 방향이 정해졌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 역시 10여년 넘게 지속되어 왔다. 이번 2010년 영유아보육학회에서 ‘보육의 선진화 방향’을 주제로 하여 종사자인 시설장과 교사의 처우문제를 우선한 것은 보육의 발전과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동안 보육의 양적 확장에서 질적인 면을 고려할 때 종사자의 지위 및 보육환경에 대한 과제는 더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인이 발표하게 된 만 5세아 학제편입에 대한 문제는 학계나 현장의 요구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정치적 이슈로서 대두되었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지난 참여정부 때 이미 ‘비전 2030: 2+5 전략’에서 만 5세아 조기 취학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결과적으로 만 5세의 취학 논의가 경제적, 시기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폐기 되었었다. 그러다가 MB정부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가 2009년 11월 25일에 만 5세를 취학 연령으로 하향화 한다는 방안을 다시 제시하면서 최근 몇 개월동안 보육계와 유아교육계 모두 정책토론회, 학회 학술대회 등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와 반대 여론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입학연령을 한 살 낮추어서 자녀를 일찍 사회에 진출시킨다면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육아비용도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인력에 대한 바람직한 조기 양성이나 국가적 투자의 의미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입장을 제시한 것이었다. 이러한 미래기획위원회의 발표이후 보육 현장에서의 반응은 조금은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12월 1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에서 진행된 토론회¹⁾에서 ‘저출산 해법: 유아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도 보육계 인사의 참여는 없었다. 발제를 맡았던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이일주 교수는 ‘향후 유아교육학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유아학교는 현재의 유치원과 유아학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보육시설로 구축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한다. (2) 유아학교는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유아교육기

1) 여의도연구소(2009. 12. 1). 저출산 해법: 유아공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관으로 1일 3시간 주당 5시간의 국가고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3) 현행 유치원교육과정과 만 3-5세 표준보육과정은 통합하여 단일화한다. (4) 보육시설은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한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만 5세는 주로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실제 만 5세를 보육하고 있는 기관이나 관련자들을 배제하고 도출된 제안들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보육 관련자들 역시 그동안 소극적으로 보였던 관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여러 통로를 통해 관심과 적극적 의사표현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09년 12월부터 만 5세 취학연령 하양화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보육과 유아교육계 관련자를 중심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체제 개편 T/F팀’이 꾸려져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팀 역시 대부분 교육계나 유아교육계 당사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복지국과 유아교육지원과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중립적인 틀에서의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의 논의를 편파적이지 않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마땅히 두 부처를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에서 운영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본고는 그동안 관련 전공자 중심의 여러 학술대회와 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만 5세 학제 편입에 대한 문제들을 세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여 고찰 한 후에 5세 학제 편입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문제 중 보육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I. 만 5세아에 대한 현재의 지원 현황

1) 공적 지원을 위한 기본 현황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채용하고 있는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총 1백9만명 정도이며, 유치원의 경우에는 53만명이 있다(아래의 표 1 참조). 이중 만 5세 이상의 유아는 어린이집에 21만 8천명, 유치원에는 25만 1천명이 채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 만 5세아 만을 보면, 전체 총 수의 88.2%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채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서 더 높은 반면, 대도시 등 즉 서울의 경우에는 75.9%로 낮아진다.²⁾ 서울의 경우, 약 4명 중 1명의 만 5세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있다. 한편, 국공립과 민간 시설의 비율을 보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아동 중 약 31%가 국공립시설에 있으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약 27%가 국공립과 법인시설에 채용하고 있다.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채용아의 2/3은 민간(사립)시설에 있어서 만약 만 5세의 학제 편입시 공적 재정 지원의 문제에 대한 논란은 두 곳 모두 피해갈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2)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년 보육통계./서울특별시교육청(2009). 서울교육통계연보.

<표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만 5세 이상 설립 주체별 취원 유아 수³⁾⁴⁾ (단위: 명)

구 분	설립주체별								
	총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법인외	민간개인				
어 린 이 집	전국계	1,091,287	122,919	114,629	53,281	597,992	1,389	184,598	16,479
	만5세	180,360	26,703	24,731	10,822	113,083	328	2,364	2,329
	만6세	14,986	1,629	1,445	1,446	9,874	36	336	220
	만7세이상	23,651	2,272	2,691	3,070	14,273	7	1,232	106
유 치 원	전국계	537,361	125,305				411,825		
	만5세	251,067	77,734				173,227		
	만6세	646		390			253		
	만7세 이상	47		21			26		

2) 공적 지원을 위한 법적 내용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만 5세아의 경우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전면적인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법적 근거는 아래의 표 2에서처럼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다.

<표 2> 유아교육법과 영유아교육법에서 무상교육 조항비교

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조항	제24조 (무상교육)	제35조 (무상보육의 특례)
내용	<p>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3.24]</p> <p>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3.24]</p>	<p>①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p>

3)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보육통계.

4) 한국교육개발원(2009). 2009 교육통계연보.

어린이집에서 무상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만 5세는 2010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의 유아로서 매월 172천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약 12만 2천명이다.⁵⁾ 이 숫자는 총 만 5세 어린이집 재원아 중 68%에 해당하는 수이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2009년 7월부터 대상 자격은 같으나 지원 금액은 설립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즉 사립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는 172천원을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에는 5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2010년에 만 5세 무상교육 지원 대상자는 11만 7천명으로 총 만 5세 유치원 재원아 중 46.6%가 혜택을 받고 있다. 즉 2010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이하의 만 5세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수를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총 만 5세 재원아 중 68%가, 유치원의 경우는 46.6%가 그 대상이다. 이처럼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은 이미 3명 중 2명 이상 이, 유치원에서는 2명 중 1명에 가까운 만 5세가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이 숫자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지 않는 만 5세 유아 12% 정도가 제외되고 있다. 즉 약 5만명에 해당하는 양기관 미재원 만 5세아, 어린이집의 5만8천명 정도의 미지원아, 유치원의 13만4천명 정도의 미지원아를 합칠 경우, 총 24만 2천명(전체 만 5세아의 50% 정도)이 아직도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하여 무상보육과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며, 재정지원 측면에서도 실현가능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한국유아교육학회의 춘계 학술대회에서 송기창(2010)⁶⁾은 무상의무교육을 시행할 경우 재정지원방식은 도서벽지지역, 농어촌지역, 중소도시지역, 대도시지역 등 지역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차차상위계층자, 중간계층자, 상위계층자 등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지역을 기준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채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사립유치원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적 어려움은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송기창(2010)은 “장기적으로 유아교육이 의무교육화된다면, 법인유치원과 개인유치원은 차별적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법인유치원에 대해서는 기관지원과 원아 지원을 하지만, 개인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아지원만 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개인유치원에 대한 시설지원은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인유치원에 대하여 시설지원을 할 경우 유치원을 그만두면 개인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이 원하는 교원인건비 지원이 수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원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며 재정 지원에 대한 유아교육

5) 보건복지부(2010). 2010년도 보육사업 안내.

6) 송기창(2010). 유아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pp.65-78).

기관의 모순적 태도에 대한 지적과 재정지원의 공공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II. 만 5세아 학제 편입에 대한 세가지 내용의 고찰

만 5세 학제 편입에 대한 고찰은 다음의 3가지 내용으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첫째는 현재의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그대로 유지하되 궁극적으로는 100%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초등학교로 편입 또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미국처럼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듯이 K-학년(학급)을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는 초등학교로 학제에서 1학년의 연령을 하양화하여 만 5세를 1학년으로 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만 5세아 학제 편입에 대한 내용 구분

구분	내 용	교원 및 보육/교육과정	재정
현행 무상보육 (교육)의 전면 확대	-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기초	현행체제 유지	무상
K-학년제 도입	- 초등학교에 만 5세 K-학년제 마련 - 현행의 제도에서 만 5세 K-학년제 마련	-통일된 보육/교육 과정 요구됨 -동일한 교사제도 요구됨	무상 (의무)
초등학교 만 5세 하양화	- 초등학교 1학년을 만 5세로 연령 하양화	-초등교육과정의 개 정이 요구됨 -초등교사가 투입	의무

1) 조기 인적 투자를 위한 무상 보육(교육)의 강화 및 전면 확대

만 5세아 조기 취학 즉 학제 편입을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1) 급속한 저출산 사회에서 인구감소로 인해 미래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 질 것을 대비하여 한 살 먼저 직업에 뛰어들도록 수업연한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주장 (2)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은 만 5세부터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전체 주 중 몇 개의 주에서도 의무교육의 시작연령이 만 5세라는 점을 들어서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낮춘다고 해도 아동의 적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 (3)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자극이 풍부해지면서 최근 아동의 성장, 발달이 빨라졌기 때문에 만 5세로 취학연령을 낮추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는 주장을 들 수 있다.

만 0-5세 아동을 지원하는 방식⁷⁾은 크게 (1) 아동이 속해있는 가족을 강화하므로써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Stronger families, Richer childhood)이 있다.

이는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되 양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최대한 늘려주거나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높이고, 육아를 적극 지원하는 직장문화(예: 탄력적 근무 등)를 통해 가족의 육아참여를 강화하고 사회 전체가 육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책의 수행에 주요 초점이 맞추어 진다. (2)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훌륭한 인재로 아동을 키우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기관에 모든 아동이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점(equal access)과, 질적으로 우수한 기관에 대다수의 아동이 재원할 수 있는가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첫 번째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주로 두 번째 방식을 택하여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대다수 자유경제체제의 국가에서는 기관 중심의 지원에 힘을 쏟는 한편,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사회복지국가에서는 첫 번째처럼 특히 영아기에는 부모와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이후 기관에 대한 지원에 힘을 쏟는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부모와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영아기 동안 강화하고 양부모의 평등한 자녀양육참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반면 두 번째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이 영유아가 지내기에 얼마나 행복하고 적합한 환경인가가 주요 이슈가 된다.

따라서 두 번째의 기관 중심에 주요 지원을 하고 있는 호주나 미국, 영국,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수준(또는 전문가)의 평가 체제를 주요 이슈로 하여,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때 질적 수준이 우수한 기관이라 함은 교사대 아동의 비율이 낮고, 한 집단의 크기가 적으며, 교사의 교육수준이 높고 재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보육/교육과정이 잘 적용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된다.

미국 전역 10개 지역에서 종단적으로 연구된 NICHD 연구 결과⁸⁾에서 보육기관에서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가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비율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 4에서처럼 빈곤하고 어머니의 언어구사 능력이 제한적이면서 우울증이 높은 저소득 가족의 자녀일 경우(11%)가 그렇지 않은 고소득 가족의 자녀(4%)에 비해 2배 이상이나 낮은 질의 보육시설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어린시기부터 나타나게 되는 **보육의 질적 측면에서의 불평등**을 심각하게 지적하였다.

7) Fuller, B. (2007). *Standardized childhood: The political and cultural struggle over early educ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8) Vandell, D. L.(2004.6.22). NICHD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 12회 삼성국제세미나: 영유아보육과 파트너쉽.

<표 4> NICHD연구에서 보육기관에 재원한 비율

	질 낮은 보육	질 높은 보육
저소득가족의 아동	11%	8%
고소득가족의 아동	4%	15%

보육의 질적 측면에 대한 불평등은 그 기관에서 오랜 기간을 보내야 하는 영유아에게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오랜기간 미치게 된다. 영국의 대표적인 EPPE 연구(2010)에서도 ECERS-E로 측정한 질 높은 기관에서 지낸 아동의 경우 이후 초등학교에 들어가 7살과 11살이 되었을 때, 영어와 수학의 성취가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점수도 높았고 만 7세때의 인지적 성과도 높았다고 보고하였다⁹⁾. 특히 유아가 재원하였던 여러 기관의 보육과 교육기관의 유형들 중 ‘통합적인(integrated)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가장 질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Sure Start의 아동센터(Children's centre)가 대표적인 곳이다.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란 다음의 4가지 특징이 있는 데 (1) 아동 및 가족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철학, 비전, 원리를 서로 공유하고 동의하는 곳 (2) 포괄적이면서 응집력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서비스 사용자가 알고 있는 곳 (3) 정체성이나 목적, 운영 실체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종사자팀이 서로 알고 있는 곳 (4) 통합적 서비스를 재정지원하고 촉진하고자 하는 서비스 파트너 제공자들의 수행이 확실한 곳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즉 한 유형의 교육이나 보육만이 아니라 만 0-5세아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보육, 보건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부모참여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동의 종단적 발달 및 성취를 높이는 우수한 기관으로 밝혀졌다(Sylva, 2010).

우리나라의 경우 만 5세아들의 어린이집, 유치원의 취원률은 다른 연령에 비해 비교적 높으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5세아는 총 아동 중 50%에 불과하다. 이러한 재원아 중 약 30%만이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에 재원하고 있다. 물론 모든 국공립시설이 민간(사립)시설에 비해서 질적 수준이 우수하다고는 단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재정적 지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환경이나 교사의 근무환경,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 더 우수할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연구 결과를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 5,367명을 대상으로 왜 국공립유치원을 택하였는가를 물었을 때 첫째는 비용이 저렴해서였고, 두 번째는 시설 및 환경이 좋아서, 세 번째는

9) Sylva, K. (2010). Quality in early childhood settings. K. Sylva, E. Melhuish, P. Sammons, I. Siraj-Blatchford, & B. Taggart(Eds.), *Early childhood matters*(pp. 70-91), London, UK: Routledge.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라고 응답하였다. 이 세 가지는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들이다. 반대로 부모들에게 국공립유치원 중 불만족한 것을 물었을 경우, 첫째 짧은 교육시간, 둘째 취원 연령의 제한, 셋째, 초등학생 위주의 시설과 설비를 지적하였다.¹⁰⁾ 부모들이 지적한 문제 중 취원 연령의 제한은 국공립유치원의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학급 규모가 적은 것에서 야기 된다. 즉 연구 당시 전체 4,412개 국공립유치원 중 68%인 3,011곳이 한 학급규모의 유치원이었고 2학급 규모까지 합하면 총 90.4%가 되었다. 즉 10곳 중 9곳의 국공립유치원은 1-2학급의 소규모로 원장이나 원감이 비 전공자인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맡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이런 소규모 유치원에서는 취원 연령이 제한될 뿐 아니라 교사는 초등학교와 갈등적인 구조 관계에 놓이게 되고 행정 업무 부담에 따른 문제를 심각하게 겪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0%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100%까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확대하고, 각 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담보함과 동시에 보육과 교육을 원하는 모든 만 5세가 사회경제적 지위, 인종 및 기타 어느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됨 없이 질적으로 우수한 기관에 평등하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곤란없이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므로써 교사는 전문성을 지키고 부모는 일차적 양육의 책임을 인식하며 유아는 자신의 행복한 아동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K-학년제 또는 예비학년제 도입에 대한 고찰

만 5세아 조기 학제 편입에 대한 문제들은 여러 세미나나 토론회, 학술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¹¹⁾. (1) 만 5세아 발달에 있어서 부적합하다는 주장 (2) 부모들도 반대를 한다는 주장 (3) 만 5세 조기 취학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적으나, 그 나라에서도 만 5세는 놀이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주장¹²⁾ (4) 만 5세아를 따로 분리하기 보다는 만 0-5세 이하의 6개 연령층의 영유아를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더 적합하다는 주장 (5)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해보았을 때 만 5세아보다는 더 어린 연령에게 투자를 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이 만 5세아 연령을 하양화하여 조기 학제 편입을 반대하고 있다. 조성연 등(2007)은 영국의 경우 초등학교 5세들의 학교 상황을 함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영국의 교사대 아동비가 더 낮고 아동 1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더 넓으며 정부와 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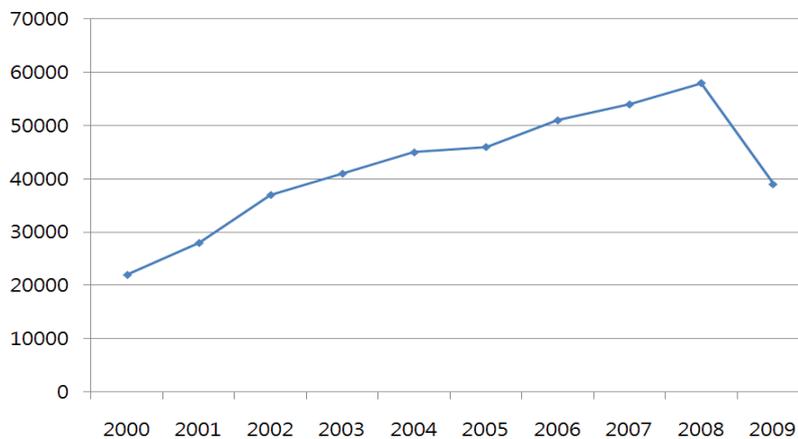
10) 조부경, 고영미(2007). 우리나라 국공립유치원관련 문헌 및 인식조사에 기초한 바람직한 유아교육학제개편.

11)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가족을 챙기는 2010년 새해 첫 보육정책 토론회(2010.1.4). 만 5세아 조기 취학안,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12) 조성연, 김선영, Donn, G. (2007). 영국의 초등학교 조기 취학을 통해 본 우리나라 유아교육각제 개편방향. **한국 미래를 위한 유아관련 학제**(pp.233-260). 서울: 양서원.

체의 재정 지원도 더 많고 부모들의 학교활동의 참여도도 더 높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만 5세를 형식적인 교육기관에 일찍 입학할 경우 획일적인 교육이 나타날 것이 우선적으로 우려가 됨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즉 현재에도 이미 만 5세에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법적으로 허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기 입학을 하는 만 5세는 적은 반면 만 6세 역시 초등학교 입학을 유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 1에는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만 6세 의무교육적정 연령 중 초등학교 유예 아동의 증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2000년-2009년까지 만 6세 취학유예 아동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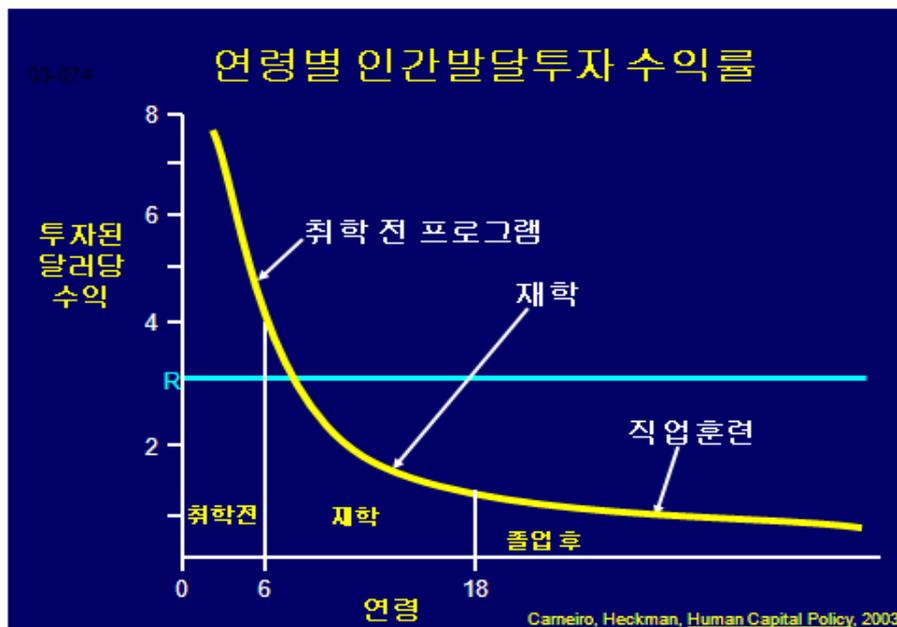
이 그림에서 보면 지난 2000년에서부터 취학 대상자인 만 6세의 총 아동수는 계속 감소를 하는데 비해서 반대로, 적정연령이면서 1학년에 취학하지 않는 유예아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은 유예 아동수가 가장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초등학교의 적정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취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학교부적응이나 따돌림의 문제를 부모들이 우려하고 있고 조기취학에 대한 효과를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⁴⁾ 반면 1996년도부터 취학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 5세 조기 취학을 한 경우는 1997년 8천587명, 1999년 9천485명으로 증가했다가 2000년 7천680명, 2001년 5천57명, 2005년도에는 2천972명으로 줄곧 감소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OECD(2006) Starting Strong에서 제시된 연령별 인간발달에

13) 교육통계연보 (2009). 한국교육개발원.

14) 연합뉴스(2009. 11. 25) '학교부적응 우려?' 조기취학↓ 취학유예↑.

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즉 인간의 생애 중 만 6세이하의 시기에 투자를 하였을 때에 투자된 달러당 수익률이 최고조로 높지만 만 6세가 지나면서 초등학교 취학기에는 투자된 달러당 수익률이 감소함을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별로 예를 들면 WIC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 달러를 투자했을 때 \$3.07의 경제 이익이 있게 되고, 태아/영아기 프로젝트(Prenatal/Early Infancy Project)는 투자한 1 달러 당 \$5.10의 경제이익을, 페리 유아원 프로젝트(Perry Preschool Project)는 1달러당 \$ 8.74를, 아동-부모 센터는(Child-Parent Center Preschool) \$ 7.14의 경제 이익을, 그리고 캐롤라이나의 출생~5세 아동 프로젝트(Abecedarian Project)는 \$ 3.78의 경제이익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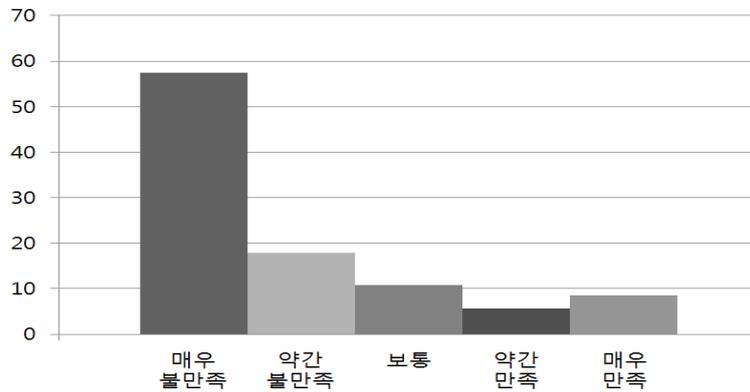


한편 최근에 실시된 한 신문사 조사¹⁶⁾에서 현재 임신부의 4명 중 3명 이상이 만 5세 취학에 대한 내용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270명을 대상으로 임신부 닷컴(<http://www.imsanboo.com>)은 '만5세 조기 취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아래의 그림 2처럼 절반이 넘는 57.4%가 이번 정책에 대해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대다수는 어린 나이에 교육을 받을 경우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고, 사교육비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15) Vandell, D. (2004. 8.22). 영유아교육 및 보육의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전략. 제 12회 삼성국제세미나: 영유아보육과 파트너십. 자료집.

16) 서울경제(2009. 12. 8). 임신부 75%, 만5세 취학에 불만족.

<http://economy.hankooki.com>



<그림 2> 만 5세 취학에 대한 임신부의 만족도

한편 K-학급(학년)제를 대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미국 중 만 3-4세 보육과 유아교육의 취원률이 전미에서 2위인 켄터키 주를 예로 제시하고 있다(손미령, 신은수, 엄정애, 2007)¹⁷⁾. 켄터키 주는 유아교육프로그램으로 K-학급(학년)이전 단계인 유아원프로그램(preschool: 3-4세)과 만 5세를 위한 K-학급(학년) 프로그램이 있고 보육프로그램으로는 3개월 미만의 영아와 임신모를 위한 HANDS(영아와 부모의 건강과 영양, 양육 및 부모교육에 중점)프로그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Fist Steps라는 만 3세 이하의 위험군 아동을 위한 보육관련 중재 프로그램과 저소득 가정의 만3-4세 유아를 위한 포괄적 보육서비스인 Head Start 및 일반 보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자들은 특히 보육과 유아교육 모두에서 학사급 교사 자격을 켄터키 주가 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Head Start에서도 2008년까지는 학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¹⁸⁾.

이들은 미국처럼 우리나라 학제에서 K-학년(학급)이 적용된다면 (1) 유아들이 어린 시기부터 성적 위주나 순위 위주의 학교 교육에 얽매이게 되고 (2) 대부분의 미국에서처럼 세분화된 공통 교육과정에서 읽기, 쓰기, 수 개념 등 기초 학습의 지습 습득을 강조할 것이며 (3) 단편적인 지식중심의 반복학습과 암기를 부추키게 되어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에서 초등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놀이중심, 다양한 자료 활용과 같은 전문화된 영역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K-학년으로 전환될 경우, “초등학교 K학년에 입학하기 전에 정규교육이 아닌 특기 중심의 학원 교육을 선호하는 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연쇄반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153 쪽)”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7) 손미령, 신은수, 엄정애(2007). 미국 K-grade 체제의 반성과 변화에 의한 Universal Pre-Kindergarten 체 전환이 우리나라 유아교육학제에 주는 시사점: Kentucky 주를 중심으로. **한국 미래를 위한 유아 관련 학제**(pp.135-160). 서울: 양서원.

18) Kentucky Dept. of Education(2006, March). Preschool regulations: Kentucky Dept. of Education Board meeting.

3) 만 5세 초등학교 연령 하향화에 대한 검토

만 5세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라는 2-3개 나라가 있으며 이중 영국이 대표적이다. 참여정부에서 이미 논의하였다가 무산되었던 만 5세 조기 입학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보면 아래의 표 5와 같으며, 참여정부에서도 자세한 검토 후 그 시행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¹⁹⁾ 아래의 표에서 보면 모두 세 가지 안이 논의되었으나 9월 학기제에 대한 논란은 과거 정부에서 충분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두 가지 만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즉 첫 번째 안은 현행 6-3-3-4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등학교에 만 5세를 조기 입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두 번째 제시된 것은 초등학교 1년을 축소하여 총 5년으로 하여 입학연령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각 대안들은 각각 두 가지씩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검토 결과 예상 재정이 너무 많이 들고 문제점이 많아서 시행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표 5> 2007년에 검토된 초등학교 조기 입학 관련한 학제 개편 검토표

대안 분석 분야	초등학교 조기입학의 경우		5-3-3-4제의 경우	
	1. 만 5세· 6세 일괄 입학	2. 만 5세 25%씩 단계적 입학	1. 초등 1년 감축, 초등 별개 과정 +중고 동일 과정	2. 초등 1년 감축, 초·중·고 별개과정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 입학연령 만6세 → 만5세 입학시기 3월로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5세아 25% 4년간 분산 입학 생년월에 따른 입학으로 4년간 혼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1년 감축 5년 수업한 학생과 6년 수업한 학생 동일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1년 감축 5년 수업한 학생과 6년 수업한 학생 별도 교육과정 운영
교육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5세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발 필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교육과정 연계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안과 동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년제 초등생과 5년제 초등생 2개 교육과정 초등학교에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년제 학생과 11년제 학제 학생에 대한 별개 교육과정 초·중·고 지속 운영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년에 2배의 학생 초등학교 입학: 12천개 학습 증설, 557개교 신설 14년 중학교에 10천개 학급 증설, 123개교 신설 17년 고등학교에 10천개 학급 증설, 227개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여건 다소 악화로 수용은 가능 다만 경기, 서울의 경우 심도 있는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 학급, 학교 신설 추가 없음 13년 중학교에 13천개 학급 증설, 182개교 신설 16년 고등학교에 13천개 학급 증설, 363개교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 학급, 학교 신설 추가 없음 13년 중학교에 16천개 학급 증설, 181개교 신설 16년 고등학교에 15천개 학급 증설, 362개교 신설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08년 초등학교 17천명 14년 중학교 22천명 17년 고등학교 4천명 증원 일시적 증원으로 인한 질 관리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여건 다소 악화로 수용은 가능 다만 경기, 서울의 경우 심도 있는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년 중학교 29천명 16년 고등학교 5천명 증원 1-1안과 동일한 문제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년 중학교 33천명 16년 고등학교 6천명 증원 1-1안과 동일한 문제발생

19) 교육인적자원부(2007.6). 비전 2030 2+5 전략 중 입학연령 단축을 위한 수업연한 조정관련 학제개편 추진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원발생으로 신규채용 곤란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까지 소요액: 학급증설비용(2조 5천억원), 학교신설비용(28조 7천억원), 교원 인건비(14조 3천억원) 2020년까지 총45조원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적인 재정 소요 없음(교육여건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까지 소요액: 학급증설비용(1조 9천억원), 학교신설비용(16조 4천억원), 교원 인건비(9조 5천억원) 2020년까지 총 28조원 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까지 소요액: 학급증설비용 (2조 4천억원), 학교신설비용 (16조 3천억원), 교원 인건비(10조 7천억원) 2020년까지 총 29조원 소요
노동시장(수요·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46만명 추가졸업 고교 졸업후 직업세계 진출시 재수생 증대 대학 졸업후 직업세계 진출시 초과 공급 심화로 실업률 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세계 진출이 4년에 걸쳐 분산 근본적 문제는 1-1 안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먼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1안과 동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먼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1안과 동일함
대학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편학제로 졸업하는 2020년 대학입학자원 2배 증가 대학 재정에 긍정적 효과 과열 입시경쟁 정부의 구조개혁, 특성화 정책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교 졸업생이 4년에 걸쳐 분산 근본적 문제는 1-1 안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안과 동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안과 동일함
이행관계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5세아 부모는 만6세아와의 경쟁으로 불만 유아교육계의 반발 초등교사의 만5세아 지도에 대한 어려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안과 동일함 동일 연령의 학생들이 상이한 학년에 뒀에 따라 정체성 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 나이대가 함께 수업 받는 것에 학부모 반대 초등교원 감소 반대 세계적 추세인 12년 교육과정과 상이 1년 단축으로 교육 불평등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안과 동일

*출처: 교육인적자원부(2007.6). 비전 2030 2+5 전략 중 입직연령 단축을 위한 수업연한 조정관련 학제개편 추진계획(안). p.93.

위의 표에서 이해집단에 대한 부분을 부모, 교사, 양성기관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들의 경우 어느 한 시기는 만 5세가 만 6세와 동시에 한 학년을 지내야 할 때, 만 5세의 학부모들은 (1) 자녀가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 뒤떨어질 것을 우려하거나 (2) 발달의 개인차로 인한 신체적 미성숙 아동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하고 (3) 만 6세아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반면 만 6세 입학생을 둔 학부모는 (1) 만 6세아가 만 5세아들과 계속 같이 진급하면서 치열한 경쟁에 놓이게 됨을 우려 (2) 상급학교 진학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만 5세와 지속적인 경쟁 상태 조장 우려를 나타낼 수 있다.

한편 보육계나 유아교육계에서는 이용 대상 연령이 만 3~5세에서 만 3~4세로 감소되어 취원 아동의 약 1/3(2008년을 개편일로 하였을 때 약 49만명)이 감소되어 유치원 및 보육 시설의 대폭 폐원 등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한편 유치원과 보육계 교사의 사회적 수요 감소로 인해 졸업생들의 취업난이 우려되고 일자리 축소에 대한 인식으로 입학정원의 감소가 우려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들은 기존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도 지도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어린 만 5세아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우려가 예상되며, 시행연

도 입학생들의 경우 만 5세와 만 6세 모두를 지도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 만 5세아의 취학에 맞게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다시 재정되어야 하며, 만 5세아 지도를 위한 새로운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구성해야 하는 할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가 6년에서 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초등학교 교원이 감소되어 이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며 특정연도에 졸업생이 두 배가 됨에 따른 입시와 취업경쟁에 대한 혼란이 예상될 수 있다. 통상 12년 교육과정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초등학교가 5년으로 줄어들어 11년만을 이수하게 됨에 따라 외국 학제와의 통용성이 부족하여 유학의 어려움의 발생할 수 있다²⁰⁾.

Ⅲ. 만 5세아 학제 편입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문제 : 보육과정/교육과정의 통합에 대한 논의

마지막으로 만5세 학제 편입시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문제 중심으로 구체적인 몇 가지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세 번째 내용처럼 초등학교로 만 5세아 연령이 하양화 되었을 때 초등학교 교사를 만 5세 지도를 잘 할 수 있도록 재교육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논의가 주어진다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우선적으로 통합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보육과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통합 노력이다. 다른 하나는 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질적 고양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부분은 김명순(2009)²¹⁾, 보육정책 선진화 방안²²⁾, 또는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계획²³⁾ 등을 참고하고 본고에서는 보육과정/교육과정에 대한 비교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2007년 1월에 고시된 표준보육과정과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추구하는 인간상, 목표, 하위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 및 내용부분에서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은 매우 유사하다. 다음의 표 7은 구체적인 교육과 보육의 하위영역별로 비교한 표이다.

<표 6>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목표의 비교

영역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가. 자율적인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 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

20) 교육인적자원부(2007.6). 비전 2030 2+5 전략 중 입직연령 단축을 위한 수업연한 조정관련 학제개편 추진계획(안).
 21) 김명순(2009.12.17). 우수 보육교사 양성체제의 발전방안. 2009년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세미나.
 22) 서영숙, 김명순, 황옥경(2010). 보육정책 선진화 방안. 임해규의원 연구보고서.
 23) 교육과학기술부(2009. 11).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계획.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라. 민주적인 사람 마.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	
목표	건강 생활	·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기본생활 습관을 기른다.	기본 생활	·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신체 운동	· 자신의 신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른다.
	사회 생활	· 더불어 사는 태도와 우리 전통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사회 관계	·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태도를 가진다.
	표현 생활	·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예술 경험	· 자연과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언어 생활	·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능력을 기르며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	의사 소통	·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 생활태도와 습관을 가진다.
	탐구 생활	·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 하며 자연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자연 탐구	· 주변 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표 7>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하위영역별 내용 비교

내용		제 7차 유치원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유치원 교육 과정	표준 보육 과정				
건강 생활	신체 운동	· 나의 몸 인식하기 <-----> · 나의 몸 움직이기 <-----> ·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하기 <-----> · 안전하게 생활하기 <----->	<-----> <-----> <-----> <----->	· 감각과 신체인식 · 신체활동 참여 / 신체조절과 기본운동 (기본생활) · 건강한 생활 (기본생활) · 안전한 생활	
사회 생활	사회 관계	· 나를 알고 사랑하기 <-----> · 가족과 함께 하기 <-----> · 이웃과 더불어 살기 <-----> · 우리 생활 돌아보기 <----->	<-----> <-----> <-----> <----->	· 자기존중 / 정서인식과 조절 ·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 · 사회적 지식	
표현 생활	예술 경험	·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 찾아보기 <-----> · 예술적 표현 즐기기 <-----> · 감상하기 <----->	<-----> <-----> <----->	· 심미적 탐색 · 예술적 표현 · 예술 감상	
언어 생활	의사 소통	· 듣기 <-----> · 말하기 <-----> · 읽기 <-----> · 쓰기 <----->	<-----> <-----> <-----> <----->	· 듣기 · 말하기 · 읽기 · 쓰기	
탐구 생활	자연 탐구	· 탐구하는 태도 가지기 <-----> · 과학적 기초능력 기르기 <-----> · 수학적 감각 기르기 <----->	<-----> <-----> <----->	· 탐구적 태도 · 과학적 탐구 · 수학적 탐구	
	기본 생활			· 건강한 생활 · 안전한 생활 · 바른 생활	

위의 표에서 보듯이 하위내용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이 많으며 표준보육과정의 경우 기본생활영역이 강조가 되고 있고 신체운동에서 신체활동의 참여와 사회관계에서 정서인식과 조절에 대한 부분이 더 추가되어 있다. 그러나 수준별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유치원교육과정의 경우에는 만 3-5세 세 개 연령층의 교육내용 수준 구분이 I 과 II수준으로 되어 있다. 즉 만 5세의 경우 이 중 I 수준을 택하였을 때, 어느 내용은 만 5세에게 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표준보육과정의 경우에는 만 3-5세가 I, II, III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만 5세의 내용을 III수준으로 택하였을 경우, 유치원교육과정에 비해 더 만 5세에게 적합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유사하리라 여겨지는 표준보육과정에서의 의사소통(만 3-5세용)과 유치원교육과정의 언어생활을 수준별로 비교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8에서 보면 내용(하위내용)은 거의 유사하였고 수준별 내용에 있어서도 대부분 유사하였다. 그러나 표준보육과정의 경우에는 유치원교육과정에 비해서 읽기와 쓰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치원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자신의 느낌, 생각을 말하기에서 약간 세분화되어 있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은 수준별 내용이 III수준까지 나뉘어져 있어 만 5세에게 더 적용하기가 적합하게 되어 있었다.

이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고양을 위해 교사대 아동의 비를 동일하게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²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만5세의 경우 1:20인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최소 25-33명(교육인적자원부, 2007)으로 되어 있어 큰 차이가 있다. 구조적 질을 높이고자 하는 방안은 보육계나 유아교육계 모두에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IV. 나가는 글

대표적인 만 5세 취학연령 국가인 영국의 경우, 만 5세는 만 6세와는 다르게 놀이 중심의 접근법을 유지하여 초등학교의 획일적인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를 갖되²⁵⁾, 만 0-5세 미만의 영유아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더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보육법 제정, 행정부처의 통합, 보육서비스 확대 및 종사자 전문성 확보 및 만 0-5세로 통합보육과정의 제정을 최근 3년 만에 모두 실행하였다.** 즉 보육서비스 계획과 보육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2006년에 보육법(Childcare Act)을 승인하고 2007년 6월에 정부 조직법을 단행하여 만 0-19세까지의 모든 영아, 유아, 아동,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 가족 정책을 모두 통합하고자 아동학교가족부(Department of Children,

24) 김명순, 김혜균, 이운선, 안현숙 (2009). 보육서비스 질관리를 위한 운영기준 합리화 방안. 보건복지부.

25) 서영숙, 김명순, 황옥경(2010). 보육정책의 선진화방안. 임해규의원 연구보고서.

Schools, and Families)로 행정부처의 명칭을 바꾸었다. 이는 사회복지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던 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을 통합하여 수행하고자 함이며 아동과 가족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정책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 후 2007년 10월에 국가아동계획(Children's Plan)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보육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아동을 더 지원하며 기관과 부모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사나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후 2008년도에는 그동안 0-3세의 내용과 3-5세의 Foundation Stage의 교육내용을 합하여 0-5세 연속성을 강조하고 보육과 교육의 통합을 이루도록 학습, 발달, 양육부분에서 통합 과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만 0-5세 영유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발달이나 양육에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크게 인식한 것이며 이후 2009년에 발표한 보육과 조기 학습에서 다음 계획(Next Steps for Early Learning and Childcare)에서는 다양한 보육 및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모들의 선택권을 강화하여 필요에 따라 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만 5세 학제 편입논란이 정치권에서 시작하여 경제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보육계와 유아교육계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란 속에서도 학계나 현장의 종사자 모두 대상 아동을 중심에 두고, 이들이 최적의 삶을 위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논의가 지속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표 8> 표준보육과정 만 3-5세 의사소통과 유치원교육과정 언어생활의 수준별 내용 비교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1 수준	2 수준
1. 낱말의 발음 경청하기		낱말 각각의 발음에 관심을 가진다. 비슷한 발음의 낱말을 주의 깊게 구별하여 듣는다.			
2.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일상생활과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뜻을 안다. 교사가 제시하는 사항을 듣고 지시에 따른다.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한다.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이해한다.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여 다시 말한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것에 대해 질문한다.		일상생활에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한다. 지시를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한다. 지시를 듣고 적절하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한다.	1. 낱말과 문장 듣고 이해하기 2.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3. 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듣는다. 동화, 동시, 동요를 듣고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다양한 문학 작품을 즐기다. 다양한 문학 작품을 듣고 그 내용을 전래동화, 동요, 동시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듣는다.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 반응을 보이며 주의 깊게 듣는다.	3. 문학 작품 즐거듣기
4. 동요, 동시, 동화 듣기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할 때 주의 깊게 듣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 이야기의 내용을 집중하여 듣는다.			4. 바른 태도로 듣기
5. 바른 태도로 듣기		여러 낱말을 머르게 발음한다. 정확한 발음으로 또렷하게 말한다.		정확하게 발음해 본다. 문장으로 구성하여 말한다.	5.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6.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일상생활의 경험을 낱말과 문장으로 말한다. 낱말과 문장을 문맥에 맞게 말한다. 여러 상황을 다양한 어휘로 말한다.		새로운 어휘에 관심을 가진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말한다. 자신의 요구와 생각을 말한다. 자신의 느낌을 말한다.	6. 생각과 느낌 말하기
7. 낱말과 문장으로 말하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이야기를 지어 말하기를 즐긴다.	7. 이야기 지어 말하기
8.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경험한 것을 동시나 간단한 동화로 꾸며 말한다.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하위 내용	
			3 수준	2 수준	
		주제를 정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간단한 내용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도록 말한다.		다양한 자료를 보고 창의적으로 꾸며 말한다. 동화, 동시를 창의적으로 지어본다. 주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9. 상황에 맞는 언어 사용하기	듣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말한다.	듣는 사람, 때, 장소에 알맞게 말한다. 듣는 사람과 마주 보며 말한다.		어른께 존댓말을 사용한다. 때와 장소, 대상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말한다.	6. 생각과 느낌 말하기
10. 바른 태도로 말하기	말할 차례를 지켜 말한다.	상대방의 반응을 헤아리고 차례를 지켜 말한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에 관심을 가진다.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한다. 말할 차례를 지켜 말한다. 말할 차례를 지키며 바른 태도로 이야기를 나눈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8. 바른 태도로 말하기
11. 읽기에 흥미 가지기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글자를 흥미를 가지고 읽어본다. 어려 가지 읽기놀이를 한다. 자신의 이름을 알아본다. 주변에서 자주 보는 글자를 읽는다.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본다. 여러 가지 맥락을 활용하여 글의 내용을 추측해본다.	9. 읽기에 관심 가지기
12. 동요, 동시, 동화 읽기	동요, 동시, 동화를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읽어 본다. 동요, 동시, 동화를 읽고 자신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13. 읽어 주는 글 이해하기	읽어 주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보인다. 읽어 주는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책에 흥미를 가지고 그림책을 즐겨 본다. 좋아하는 책을 자주 본다.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			책 보는 것을 즐기고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 궁금한 것을 책에서 찾아본다.	
14. 그림책 읽기를 즐기기	궁금한 것이 있을 때는 교사와 함께 책을 찾아본다.		스스로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을 찾아 읽는다.		10. 책에 관심 가지기

표준보육과정				유치원교육과정 (2007년 개정)			
내용	1 수준	2 수준	3 수준	1수준	2수준	하위 내용	
15. 낱말과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글로 적는다. 흥미 가지기	낱말과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글로 적는다.	낱말과 문장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쓴다. 글자를 보고 모방하여 쓰기를 한다.	자신의 이름을 쓴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내용을 추측해 본다.	책의 그림을 단서로 추측하여 읽는다.		
16.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글로 적는다. 흥미 가지기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글로 적는다.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쓴다.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림과 글자로 쓴다.		자기 이름의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자기의 이름을 써본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글로 적는다.	11. 쓰기에 관심 가지기	
17. 쓰기 도구와 매체 사용하기	여러 가지 펴기구와 종이, 키보드, 마우스 그 밖의 쓰기 관련 매체를 사용한다.			여러 가지 쓰기 도구에 관심을 가진다.	쓰기 도구의 바른 사용법에 관심을 가진다.	12. 쓰기 도구 사용하기	
18. 말과 글의 관계 알기	유아의 말을 교사가 글로 받아 적을 때, 말이 글로 바뀌는 과정에 관심을 보인다.			말이나 생각을 글로 옮길 수 있음을 안다.		11. 쓰기에 관심 가지기	